

데이터센터·원전 품고 ‘종합 냉난방 에너지그룹’ 도약

29 귀뚜라미

Kiturami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라는 광고 카피로 유명한 귀뚜라미그룹이 보일러 회사에서 ‘종합 냉난방 에너지그룹’으로 환골탈태하고 있다.

1962년 당시 ‘신생보일러공업사’로 시작해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를 잇따라 선보이며 대한민국 난방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귀뚜라미가 냉방, 공조, 에너지 등으로 사업영역을 무한 확장하고 있다.

3일 귀뚜라미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2000년대 들어 세계적 추세인 종합 냉난방 에너지기업으로 변신을 준비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귀뚜라미 범양냉방(2006년), 신성엔지니어링(2008년), 센추리(2009년), 강남도시가스(현 귀뚜라미에너지) 등 국내 냉동·공조 업체, 에너지 공급사를 잇따라 인수하며 냉방기, 냉동기, 공조기, 원전용 냉동공조기,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탄탄한 기술력과 사업력을 확보하면서다.

국내 보일러 시장은 보급기(1980년대)→성장기(1990년대)→성숙기(2000년대)를 거쳐 2020년대 들어선 침체기를 맞고 있다.

이런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귀뚜라미는 지난해 기준 그룹 전체 매출이 1조 6100억원까지 성장했다. 보일러 산업 전체 속에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 2000년 이후 5배 이상 매출이 늘었다.

이는 보일러를 중심으로 한 난방 사업을 제외한 비보일러 사업 매출이 전체의 70% 가량에 이를 정도로 각 사업 분야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확보했기에 가능했다.

◆주력 난방사업에 구독경제 접목

우선 난방 사업 분야의 귀뚜라미는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 28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독보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며 우리나라 보일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거꾸로 NEW 콘텐츠 P10, 거꾸로 ECO 콘텐츠 L20 등 친환경 콘텐츠 보일러를 중심으로 가스보일러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 영업 강화와 현지 특화 제품 생산 및 판매를 통해 해외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

보일러 역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생활환경가전처럼 구독경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보일러는 평균 100만원 안팎의 교체 비용이 필요한 제품이다. 교체 시점이 다가와도 비용 부담 때문에 사용 기간을 늘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귀뚜라미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2025년에 가정용 보일러 렌탈 서비스 ‘따숨케어’를 선보였다.

기존엔 보일러를 판매하고 A/S를 제공하는 구조였다면 렌탈 서비스는 설치 이후 장기간 유지관리까지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서비스에는 ▲최대 8년 무상 A/S ▲연 1회 정기 성능 점검 ▲24시간 이내 고장 대응 등이 포함된 소비자가 별도로 관리 일정을 챙기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렌탈 모델 역시 소비자의 주거 환경과



① 귀뚜라미그룹 충남 아산시사업장 전경. ② 귀뚜라미 냉난방 기술연구소 전경. ③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창업주 겸 회장(앞줄 왼쪽 7번째)이 지난 5월 전남 해남군 모범 학생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귀뚜라미

보일러 산업 전체 속 사업 다각화
2000년 이후 매출 5배 이상 늘어

가정용 보일러 렌탈 ‘따숨케어’
판매 경쟁보다 서비스 경쟁 공략

AI 시대 속 냉각탑 분야 행보 기대
드라이룸·HVAC 등 개발·수출
원전·특수선 냉동공조기기 성과도

41년간 사회환원 금액 누적 610억
올해 상반기엔 장학금 13억 지원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상금 후원도

설치 조건에 맞춰 고압형과 일반형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보일러에 렌탈 비즈니스를 접목한 것은 귀뚜라미가 구축해 놓은 전국 약 300개 대리점과 서비스 네트워크가 있기에 가능했다. 제품 설치와 유지관리, A/S 등은 기존 귀뚜라미 서비스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렌탈 계약과 운영은 현대렌탈케어와 협업하는 방식이다.

회사 관계자는 “렌탈 시장이 생활가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소비자는 제품 자체보다 관리 서비스를 함께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보일러 역시 앞으로는 판매 경쟁보다 서비스 경쟁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원전 등 미래 분야 시너지 모색

귀뚜라미범양냉방, 신성엔지니어링, 센추리 등 냉방 계열사는 귀뚜라미그룹 전체 매출의 40% 가량을 담당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냉각탑 분야 국내 1위인 귀뚜라미범양냉방은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향후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반도체, 클린룸에 사용하는 산업용 냉각탑, 외조기 등 산업용 공조기의 설비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산공법을 개발해 맞춤형 냉동·공조 설비의 개발·시공을 확대하고 있고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나라 냉동·공조 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회사는 향후 데이터센터 뿐만 아니라 친환경 냉각탑, 발전소용 냉각설비, 신재생 냉각 솔루션 등 신규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수주 확대가 예상된다. 또 바이오산업 성장에 따른 관련 프로젝트 증가와 L

NG·풍력발전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기회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

신성엔지니어링은 2차전지용 드라이룸 시스템 국내 1위 기업이다. 드라이룸(Dry Room) 시스템, 공동주택용 지열시스템, 바닥공조 시스템 등 최신형 시스템 공조화 기술과 함께 고효율 터보냉동기, 흡수식 히트펌프 등 국산 냉동·공조 제품 개발과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외 반도체, 배터리 제조 하이테크 산업시설에 냉난방공조(HVAC) 제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국내 40메가와트(MW)급 데이터센터 쿨링시스템(Cooling System)을 수주하는 등 신사업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향후 2차전지 및 반도체 핵심 설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에 대응해 냉각 시스템 등 관련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사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센추리는 원자력발전소와 특수선(잠수함 등) 냉동공조기기 국내 1위 기업이다. 원전사업 관련 냉동공조기기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등의 노하우를 통해 탄탄한 기술과 인력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고 국내 원전 20기 이상의 건설 사업에 참여했다.

앞으로도 해외 원전 신규 및 개보수 사업 분야 진출을 가속하고, 함정 및 잠수함 수요 증가에 따른 냉난방 공조 장치 수주를 지속해 업계 선도기업 위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원전 사업에선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 MSR(용융염 원자로) 국책 과제를 통해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노후 원전 개보수 및 해외 원전 사업 수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조선 부문 역시 수출형 잠수함과 수상함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차세대 잠수함용 이산화탄소 제거장비 등 신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귀뚜라미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보일러 시장을 주도하는 우수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냉난방 시스템 기업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귀뚜라미도 주력 계열사들의 기술력과 시너지를 바탕으로 난방, 냉방, 공조, 에너지가 하나의 기술로 통합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난방, 냉방, 공조, 에너지 등 주력 사업을 유기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보

일러 전문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냉난방 에너지그룹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1년간 누적 장학금 610억, 장학생 7만명 배출

귀뚜라미는 장학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그룹이 귀뚜라미문화재단, 귀뚜라미복지재단 등을 통해 지난 41년간 사회에 환원한 금액만 누적 610억원에 달한다. 귀뚜라미 장학금을 받은 인원은 총 7만명이 훌쩍 넘는다.

창업주 최진민 회장은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85년에 사재를 출연, 귀뚜라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사회공헌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공학 기술 발전과 교육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장학사업과 학술 연구 지원 사업도 지속해오고 있다.

귀뚜라미문화재단은 올 상반기에만 전국 24개 지방자치단체, 1346명의 장학생들에게 총 13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올해 1월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6월 10일 경북 칠곡군까지 24곳 지자체에서 상반기에 진행한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에 모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며 인재 육성 철학을 몸소 보여줬다.

‘한국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국공학한림원 대상은 귀뚜라미그룹이 지난 1997년 제1회 시상부터 상금 전액을 후원해오고 있다. 후원 30년 차를 맞은 올해부터는 상금 규모를 총 6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상 수상자 상금 4억원을 비롯해 ‘젊은공학인상’과 ‘뉴프런티어상’ 수상자에게도 각각 1억원을 지원해 공학 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미래 인재 육성과 함께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룹은 지난 2003년 사회복지 분야를 전담하는 귀뚜라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귀뚜라미그룹 관계자는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지역 사회 구성원과 나누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복지, 학술분야의 폭넓은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